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⑱ 고성 옥천사 나한전 목조16나한상

▶ 한줄 요약
옥천사 16나한상의 크기는 60cm 내외다. 큰 것이 65cm 정도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다.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다. 제8, 제10 존자 등 지물을 든 다섯 분의 손은 따로 조각하여 결합했다.



돌아온, 돌아와야 할 열여섯 '아라한'


되찾은 옥천사 나한 5구와 제1존자의 뒷모습(우측).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제1, 제3, 제14, 제15, 제16존자. 현재 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에 봉안.

미륵하생까지 정법수호의 사명 받아
색난스님께 '조묘공', '교장' 등 호칭
목재연륜분석으로 1707년 제작 밝힘
도난 나한 5구 세 차례에 걸쳐 귀환


옥천사 나한전에 현재 봉안하고 있는 16나한. 윗줄은 왼쪽부터 제1, 3, 5, 7, 9, 11, 13, 15존자. 아랫줄은 오른쪽부터 제2, 6, 4, 8, 10, 12, 14, 16존자.

16나한의 소의경전은 〈법주기〉

나한(羅漢)은 범어 아르한(Arhan)의 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이다.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다. 공양 받아 마땅한 성인으로서 '응공(應供)'으로도 부르고, 진리에 상응하는 분으로 '응진(應眞)',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으로도 부른다. 더욱이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세상에 부처로 수기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다. 제자 중 사리불은 화광여래, 목건련은 전단향여래, 교진여 등 500아라한은 보명여래로 이미 수기 받으셨다. 다만 부처님 입멸 후 미륵하생의 시기까지 정법을 지키며 중생을 교화하라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셔서 세간에 남아 사명을 받들고 있다.

16나한의 소의경전은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다. 대아라한 난제밀다라가 '정법의 머뭄'에 대해 제자들에게 들려준 기록으로, 줄여서 〈법주기〉라 부른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654년 번역했다. 통상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의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한다. 〈법주기〉는 난제밀다라가 예부터 전해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설한 내용인 까닭에 '여시전문(如是傳聞)', 곧 '이와 같이 전해 들었다'로 시작한다. 난제밀다라존자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상정법(無上正法)이 어느 때까지 머물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존자가 대답하였다.

"부처께서는 반열반에 드실 때, 위없는 진리 법을 열여섯 아라한과 그의 권속들에게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잘 보호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부촉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저희는 16나한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존자는 16나한을 일일이 소개한다. "제1존자 이름은 빈도라발라타사, 제2존자는 가락가벌차, 제3존자는 가락가발리타사, 제4존자는 소빈타, 제5존자는 낙거라, 제6존자는 발타라, 제7존자는 가리가, 제8존자는 벌도라불다라, 제9존자는 술박가, 제10존자는 반탁가, 제11존자는 나호라, 제12존자는 나가서나, 제13존자는 인게타, 제14존자는 벌나파사, 제15존자는 아씨다, 그리고 제16존자는 주다반탁가라 이시다. 이 분들은 각 500명에 이르는 권속과 함께 남섬부주 등의 각 지역에 머물며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며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러고선 부처님 정법의 완전한 소멸에 대하여, 또 16나한이 사명을 다하고 스스로 입멸하는 숭고한 장면을 설명한다.

"인간의 수명이 칠만 세에 이를 때에 위없는 정법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느니라. 이때 16나한께서 권속들과 함께 이 남섬부주에 모두 오셔서 집회를 여신다. 신통력으로 온갖 칠보로 아주 화려하면서도 큰 솔도파(스투파:탑)를 지어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모두 그 안에 모아 두게 되느니라. 이때 16나한께서는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솔도파를 돌면서 갖가지 향과 꽃으로 공양하여 공경하고 찬탄하며 백천 번을 돌면서 우러러 예배하신 후, 모두 허공으로 올라가 솔도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게 되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들어 바른 법을 호지하며 인천세계(人天世界)에 온갖 이로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법장(法藏)이 이미 사라지고 연(緣)이 다하였기에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열반에 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일시에 모두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 예전에 기약된 원력으로 불을 일으켜 스스로 몸을 태우시니, 마치 등불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해골조차 남기지 않게 되느니라. 이때에 솔도파도 바로 땅으로 꺼져 들어가 금륜제(金輪際)에 다다라서야 멈추게 되니, 이때 석가모니부처님의 무상정법은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느니라. 이어 인간의 수명이 8만 세에 이를 때가 되면 독각의 성중들도 모두 멸도하게 되느니라. 그 이후로 미륵불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 번의 설법으로 무수한 대중들을 제도하시게 되느니라." 글은 짧지만 내용은 장대한 대하서사다. 16나한께서 사명을 다하고 입멸하는 장면과 대하서사가 깊은 울림을 준다.

17, 18세기 비수갈마천 색난 스님 작품

전국 사찰에 현전하는 16나한 조각상은 100여 곳에 이른다. 그 중 경남 고성 옥천사 나한전의 16나한상은 〈법주기〉 만큼이나 서사가 강물을 이룬다. 옥천사 나한전은 대웅전 뒤에 위치한다. 석가모니삼존상과 목조 16나한상, 인왕상 한 쌍 등 21구를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1932년 '옥천사 나한전 귀중품 목록' 기록을 보면 나한전에는 원래 27구의 조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목록에 동자와 사자, 신장상 등이 한 쌍씩 더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석가모니 삼존상은 제화갈라보살(목조)-석가모니불(석조)-미륵보살(목조)로 구성한 수기삼존불 형식이다. 수기삼존불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나투시는 삼세불로서, 범어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등 사찰의 중심법당에 봉안한다. 나한전이나 응진전의 봉안은 특이하다. 나한전의 목조 수기삼존불과 16나한상 등의 구성은 고흥 능가사 응진당, 해남 대흥사 응진당, 영광 불갑사 팔상전 등 17, 18세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수조각승 색난(色難)과 그 계파의 활동영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성형식이다. 16나한상의 조형도 마치 한 사람이 조각한 듯이 형태, 색채, 조형구성 등이 서로 닮았다. 특히 색난 스님의 본거지인 고흥 능가사의 응진당 16나한상(1685년)과는 구성과 형태가 판박이다. 조형양식에 따라 옥천사 16나한상도 색난 스님이 주도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각승 색난은 해남, 강진, 순천, 광주, 고흥, 구례, 화순, 경남 고성 등의 17, 18세기 사찰 조각에 수조각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능가사 1707년 소조불상의 복장기록 연화질에서는 '조묘공(造妙工) 통정 색난'으로 부르고 있다. 때론 '교장(巧匠) 통정대부'로 새기고, '조상편수(造像片手)', '화원도편수', '선수양공(善手良工)'으로도 칭했다. 한 사람의 조각승 화원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별칭으로 헌사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조묘공'이나 '교장'의 호칭은 색난에 대한 특별한 예경이다. 조선 최고의 화승이었던 의겸을 일러 붓의 신선으로서 '호선(毫仙)'이라 찬한 것과 같다. 그러한 천하의 명장을 일러 '비수갈마천'에 비유하곤 한다. 비수갈마천은 천상의 조형장인이다. 색난 스님은 승려 조각장인으로서 17,18세기 조선의 비수갈마천이었다.

7구 도난, 두 분 나한상 더 돌아와야

옥천사 16나한상의 크기는 60cm 내외다. 큰 것이 65cm 정도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다.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다. 제8, 제10 존자 등 지물을 든 다섯 분의 손은 따로 조각하여 결합했다.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에서 2016년 연륜연대 분석을 했다. 연륜연대분석 결과 나한상 조각에 사용한 목재는 1706년 늦가을에서 1707년 초봄 사이에 벌목하였음이 밝혀졌다. 나한상 제작연도를 1707년으로 편년했다.

옥천사 나한상은 물욕에 어두운 손길을 탔다. 1988년 16구의 나한상 중 7구를 도난당했다. 16나한은 명부전의 시왕 열 분을 봉안하는 방식처럼 배치한다. 1,3,5…15의 홀수 번 존자는 향우측에, 2,4,6…16의 짝수 번 존자는 향좌측에 봉안했다. 번호는 대좌는 새겨뒀다. 그 중에 1, 3, 5, 13, 14, 15, 16번 존자 일곱 분을 도난당했다. 빈자리엔 새로이 조각한 나한상을 임시로 모셨다. 근 30년의 시간이 무심히 흘렀다. 2014년 국내 불법경매로 나온 제3, 제14존자를 되찾았다. 2016년엔 제15, 제16존자가 개인 소장자의 기증 형식으로 돌아왔다. 2017년엔 제1존자가 외국 크리스티 경매 과정에서 극적으로 귀환했다. 아직 두 구의 나한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외국에서 귀환한 제1존자는 오른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는 쑥스러운 듯이 웃고 있지만, 도난의 흔적과 아픔은 생생하다. 등허리를 통해 납입한 복장물은 도난당하고, 복장물을 납입한 사각형 구멍만이 휑하게 뚫려 있다. 오른 손목엔 아직도 경매장에 경매물품으로 오른 꼬리표가 달려있다. 꼬리표엔 이런 영문이 남아있다. '25-APR-17/Sale 13641/Lot133/CHRISTIE'S' 그 위에 크리스티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다. 파란색 스탬프 도장 아래 'Sale 13641'라는 판매번호가 눈에 아프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성스러운 성보문화재 역시 그러하다.

나한상에는 '무기교의 기교'가 묻어난다. 조형에 꾸밈과 기교가 없다. 자연스럽고 친밀하며 천연스럽다. 나한은 미래세의 여래로 수기된 성자다. 그런데 삶 속에 실존했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한의 지위엔 성(聖)과 속(俗)의 두 위상이 공존한다. 색난 스님은 아라한 속에 그가 걸어온 수행의 길,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 저마다의 표정에 삶의 희로애락과 기침 소리가 뱄다. 고개 숙여 생각하기도 하고, 회상하듯 생각에 잠겨있기도 하고, 잔잔히 미소 짓기도 하며, 고개 돌려 무심히 눈길을 던지기도 한다. 표정이 살아있다. 저 분들 속에 '나'가 있다. 그래서 나한상에 친근한 인간미가 우러나온다. 하지만 허전하거나 가볍지 않다. 나한상 저마다의 고유성과 부드러운 아우라를 살려내기 위해 소재와 모티프, 몸짓, 표정을 세심하게 구성하고 베풀었다. 어떤 나한에는 편한 자세에 미소를 더해 친근함에 친밀함을 더했다. 또 어떤 나한에는 인자한 미소에 장난기 가득한 어린 사자상을 배치해 순수에 순수를 더했다. 소박함 속에 다정함이 융숭하다. 시선의 방향, 손에 든 지물, 무릎에 안겨 오르는 동물, 앉은 자세, 심지어는 표정 짓는 눈썹 형상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조형 저마다의 생명력과 분위기를 쟀다. 그러면서 무심한 듯 투박하게 새겼다. 무위의 해탈 경지다. 나한상의 명품으로 손색없다.

〈사진작가〉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